

여성가구의 취업상태별 가계재정상태 분석

맹 호(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김 순 미(충남대학교 교수)

일반적으로 여성가구는 남성가구에 비해 사회적 지위와 접근성, 그리고 재정상태가 낮은 집단으로 분류된다. 특히 여성의 취업활동기회는 매우 제약적이기 때문에, 여성가구의 취업상태는 가계재정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핵심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가구 취업상태에 따른 가계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문제로서 첫째, 여성가구 취업가계와 여성가구 비취업가계의 재무비율은 어떠한가, 둘째, 가계재정상태의 재무비율 준거기준에 맞는 두 집단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셋째 두 집단의 재무비율에 미치는 요인분석을 분석하는 초점을 두었다.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에서 실시한 제1차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를 연구자료로 선정하였으며, 여성가구 가계 중 취업가계 720가계, 비취업가계 551가계를 합하여 총 1,271가계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한 변수로서, 거주지역, 배우자직업유무, 재학자녀수, 월평균가계지출, 순자산 등 변수를 사용하였고, 재무비율 변수로는 가계수지지표(월평균가계지출/월평균가계소득), 비상자금지표(유동자산/월평균가계지출), 부채부담지표(유동자산/총부채), 유동성지표(유동자산/순자산)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방법으로는 SPSSWIN프로그램(17.0)을 이용하였고,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교차분석, t검정, 피어슨의 상관계수, Logistic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문제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구 취업가계와 비취업가계의 재무비율을 보면, 여성가구 취업가계의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부채부담지표, 유동성지표는 각각 0.84, 0.74, 0.75, 0.43였으며, 여성가구 비취업가계의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부채부담지표, 유동성지표는 각각 0.68, 0.75, 0.74, 0.36였다.

둘째, 두 집단 간의 재무비율 분포차이를 보면, 취업가계의 84.4%가 가계수지지표의 준거기준(<1.0)을 만족하였고 비취업가계는 67.9%가 만족하였다. 또 비상자금지표는 취업가계의 74.35%가 준거기준(>3.0)을 만족하였고, 비취업가계는 76.4%가 만족하였다. 부채부담지표는 취업가계의 75.6%가 준거기준(>0.1)을 만족한 반면 비취업가계는 73.9%가 만족하였다. 유동성지표는 취업가계의 47.5%가 준거기준(>0.25)을 만족하였고, 비취업가계는 36.4%가 만족하였다.

셋째, Logistic결과를 보면, 취업가계의 가계수지지표에는 재학자녀수, 현재경제상태, 가계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유무, 비취업가계에는 배우자생존유무, 배우자직업유무, 주택소유여부, 현재경제상태, 가계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유무, 이전 및 기타소득유무가 유의하였다. 취업가계의 비상자금지표에는 거주지역, 여성가구 교육수준, 재학자녀수, 현재경제상태, 자산소득유무가, 비취업가계에는 거주지역, 여성가구 교육수준, 주택소유여부, 현재경제상태, 가계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유무, 자산소득유무가 유의한 변수였다. 취업가계의 부채부담지표에는 여성가구 교육수준, 주택소유여부가, 비취업가계에는 가계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유무가 영향을 미쳤으며, 취업가계의 유동성지표는 거주지역, 여성가구 교육수준, 재학자녀수, 주택소유여부, 현재경제상태, 자산소득유무, 비취업가계는 거주지역, 현재경제상태, 가계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유무, 자산소득유무가 유의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여성가구 취업가계의 재무비율은 비취업가계에 비해 재학자녀수가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부채부담지표 및 유동성지표에 모두 영향을 미쳤고, 부채부담지표와 유동성지표에는 재학자녀수 외에 교육수준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비취업가계의 재무비율은 취업가계에 비해 비상자금지표, 부채부담지표 및 유동성지표에 가계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영향을 미쳤고, 가계수지지표와 비상자금지표에는 주택소유여부도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가계수지지표에는 배우자관련변수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변수차이는 앞으로 정책제안 및 후속연구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